

청소년의 생활 만족도와 가치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 숙 경* · 김 초 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강교육과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목 차

I. 서 론	IV. 결과 및 고찰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시대와 민족, 일반적 사회문화의 변화, 종교의 기능은 물론 각 개인의 연령, 환경, 삶의 과정에서 취득한 입지, 역할, 심신의 건강 상태, 성취경험, 인간관계, 인생관, 가치관등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말해 죽음이란 실제 생활에서의 어떠한 상실감과 그로인한 두려움이 삶의 부정적 이면인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적 태도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기에, 결국 한계 상황 하에서의 죽음 의지는 삶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죽음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태도와 사후 존재에 대한 믿음은 교육, 가정 환경등의 외적 환경과 신뢰 대 불신감, 긍정 대 부정적, 수용 대 공격성등 정신, 심리적 개인차에 의해 결정되기도한다(이정숙, 1980).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급기서 되는 사회는 그만큼 삶의 인식과 이해에 있어 모호성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인식하고 이해 하는 것을 은폐한다는 것은 삶의 안일성과 본질성을 이해함에 있어 삶의 신비성을 조장할 뿐이다.(김인회 외, 1974) 따라서 미국의

많은 대학과 고등학교에서는 죽음에 관한 교육이 정규 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는 '죽음에 관한 교육 및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안황관, 1988).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을 좀더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개방적으로 언급하거나 연구 및 토론의 주제로서 다루는 것도 회피해 왔다(권성자, 1983). 그러나 기존의 죽음과 관련된 연구는 죽음을 앞둔 임종환자나 노인, 또는 어린이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 앞에서는 죽음에 대해 말하기조차 금기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죽음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또 성인들이 가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생의 위기로서 부분적인 죽음의 현실을 접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죽음에 대해 알게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권성자, 1983).

그러나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사회적, 여러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또한 스스로가 본 자기자신,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기

자신, 현재와 미래 자기 자신의 모습등을 비교 검토하며, 이 시기 특유의 심리, 사회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박화조, 1983).

이러한 위기는 자기자신의 본질, 능력, 삶의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극복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청소년은 정체 혼미에 빠지기 쉽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며, 결과적으로 각종 비행이나 자살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돌파구를 찾게 된다고 한다 (박화조, 1983).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자기자신, 학교, 가정, 친구관계, 사회등에 대한 생활 만족도와 자기자신의 능력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아, 향후 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기자신과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재인식하고 인생을 설계해 나아가는 자세를 고취시키기 위해 죽음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내 남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이들이 죽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개인의 일반적 특징, 그들 자신과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등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자기자신과 삶에 대한 가치관등을 파악하여 보다 건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태도로 죽음도 삶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수용하여 삶의 구체적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건강한 태도 형성을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 만족도, 가치관등을 알아본다.
2. 죽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3. 일반적 특성인 성, 학교, 경제적 수준, 종교, 성격, 부모님 생존유무 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만족도와 가치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II. 研究方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에 위치한 남녀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중 임의로 인문계 2개교, 실업계 2개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중에서 남자 203명, 여자 301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1년 8월 19일 부터 8월 31일 까지 5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09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5부를 제외한 504부(95%)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기존의 관련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1)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는 연구자가 기존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다.

2) 가치관은 Resenberg(1972)의 자아존중감 측정 중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문항과 이은주, 김철규(1980)가 사용한 문항 중에서 인생에 대한 가치부여에 관련된 문항을 선택하였다.

3)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은 죽음에 대한 관련자료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ollett-Lester(1969)가 만든 FODS(Fear of Death Scale)를 토대로 하고 Eissler(1955), Meyer(1973), 이은주, 김철규(1980)의 자료를 참고로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본 조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 생활만족도와 가치관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의 값을 산출하였다.

3. 일반적 특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문항끼리 6개의 항목으로 묶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EY ANOVA) 방법으로 하였다.

4. 생활 만족도와 가치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 중 상관관계 분석이 불가능한 범주형 항목인 안락사, 시신처리 태도, 죽음교육의 필요성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만 가지고 Pearson's correlation으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대상자의 자살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와 불안도, 안락사, 장기이식등의 시신처리문제, 죽음교육에 대한 태도를 보았다.

1) 자살에 대한 태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0.9%를 나타내어 타인의 삶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죽는 것이 삶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64.5%이고, 자살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84.1%인데, 그 중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도 59.1%나 응답하여 대체로 자살에 대해 부정적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살이 가족과 사회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6.9%이고 그 중에서도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8%였는데 비해, '매우 그렇지 않다'의

응답은 16.9%에 불과하여 대체로 자살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표 1 참조).

2) 죽음에 대한 불안도

죽은 뒤에 생각이나 경험등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람은 전체의 40.6%, '두렵다'는 사람이 57.7%로 나타나 죽음에 대한 회피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불안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또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문항에 35.3%만이 '그렇다'라고 응답 하여 불안도가 높게(64.1%)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Kalish(1963), 서해경(1988)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다는 것과 김혜련(1991)의 연구에서 노인의 경우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타인과 죽음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는 사람은 전체의 70.1%이고, 그중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9.4%로 대부분이 죽음에 대한 불안도와는 달리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있으며, '매우 그렇지않다'는 사람은 8.1%에 불과 하였다.

또한 사람이 죽고사는 것은 타고난 운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4.5%로 나타났으며, 그 중 31.0%나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김인희, 정순복(1972)의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죽음을 자연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자살에 대한 태도

요 인	구 분					실 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 응 답	
1. 가치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 낫다	72 (14.3)	115 (22.8)	186 (36.9)	131 (26.0)	0	
2. 죽는것은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76 (15.1)	101 (20.0)	155 (30.8)	170 (33.7)	2 (0.4)	
3. 자살이란 문제해결의 한 방법	19 (3.8)	54 (10.7)	126 (25.0)	298 (59.1)	7 (1.4)	
4.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죽음을 생각	42 (8.3)	126 (25.0)	164 (32.5)	166 (32.9)	6 (1.2)	
5. 자살을 하는 사람은 용기 있다	111 (22.0)	101 (20.0)	114 (22.6)	170 (33.7)	8 (1.6)	
6. 자살은 가족과 사회의 책임	115 (22.8)	172 (34.1)	132 (26.2)	84 (16.7)	1 (0.2)	

표 2. 죽음에 대한 불안도

요 인	구 분				실 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 응 답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음은 피하고 싶다	62 (12.3)	135 (26.8)	198 (39.3)	105 (20.8)	4 (0.8)
2.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36 (7.1)	83 (16.5)	178 (35.3)	202 (40.1)	5 (1.0)
3. 죽은 뒤에 많은 것을 잃어 버려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70 (13.9)	134 (26.6)	173 (34.3)	118 (23.4)	9 (1.8)
4. 누구나 한번 죽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74 (14.7)	104 (20.6)	185 (36.7)	138 (27.4)	3 (0.6)
5. 다른사람과 죽음에 대해 터놓고 얘기 하며,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	148 (29.4)	205 (40.7)	105 (20.8)	41 (8.1)	5 (1.0)
6. 사람이 죽고사는 것은 타고난 운명	156 (31.0)	219 (43.5)	75 (14.9)	54 (10.7)	0
7.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63 (12.5)	121 (24.0)	173 (34.3)	143 (28.4)	4 (0.8)
8. 죽음이후의 사후세계를 믿지만 죽음은 두렵다	110 (21.8)	186 (36.9)	131 (26.0)	73 (14.5)	4 (0.8)

내세에 관한 믿음을 보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 28.4%이고, 대체로 믿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62.7%로 사후세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12.5%나 되었다.

그러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여부와는 상관없이 죽음이 두렵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58.7%, 그 중 21.8%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사후세계, 즉 내세에 대한 믿음과 죽음 불안도와는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 참조).

3)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죽음으로 삶의 고통을 피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전체의 68.0%로 앞서 자살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자살하는 것을 부정(84.1%)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안 황란(1988)이 청소년기는 죽음을 삶으로 부터의 도피적, 피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한 것과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0.5%로 대체로 죽음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죽음을 삶의 패배요 좌절로 보는 사람은 52.8%로 '그렇지않다'라고 보는 사람 46.8%로 비슷하다.

이것은 Pattison(1974)와 안 황란(1988)이 각각 청소년기는 죽음을 좌절과 패배로 인식한다고 연구보고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표 3 참조).

4) 시신처리 태도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이 과학실험용이나 장기이식에 쓰여도 좋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전체의 43.2%였고, 좋지 않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은 55.8%, 그 중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본 사람도 32.9%로 나타났다.

또한 매장보다 화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9.1%인데 비해, '매우 그렇지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1.0%나 되어 매장에 대한 선호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Shneidman(1970)의 미국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그들은 대체로 죽음이후 자신의 시신이 의학이나 과학실험에 이용되기를 바란다든 것과 반대되는 것이고, 김인회, 정순복(1972)의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자신의 시체가 실험용으로 이용되기를 원치않은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표 3.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실 수(%)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 응 답
1. 죽음으로 고통을 피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181 (35.9)	162 (32.1)	106 (21.0)	54 (10.7)	1 (0.2)
2.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된다	122 (24.2)	183 (36.3)	129 (25.6)	70 (13.9)	0
3. 죽음은 삶의 패배이고 좌절	137 (27.2)	129 (25.6)	120 (23.8)	116 (23.0)	2 (0.4)

표 4. 시신처리에 대한 태도

실 수(%)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 응 답
1.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이 과학실험이나 장기이식에 쓰여도 좋다	100 (19.8)	118 (23.4)	115 (22.8)	166 (32.9)	5 (1.0)
2. 매장보다 화장이 바람직하다	89 (17.7)	108 (21.4)	146 (29.0)	156 (31.0)	5 (1.0)

표 5. 안락사

실 수(%)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 응 답
살아날 가망이 없고 고통이 심한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원한다면 안락사 시키는 것이 좋다	194 (38.5)	175 (34.7)	69 (13.7)	65 (12.9)	1 (0.2)

표 6. 죽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실 수(%)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 응 답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175 (34.7)	218 (43.3)	74 (14.7)	37 (7.3)	0

나타났다(표 4 참조).

5) 안락사

살아날 가망이 없고 고통이 심한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원한다면 안락사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그렇다'가 38.5%, '대체로 그렇다'가 34.7%로 안락사를 긍정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5 참조).

6) 죽음교육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항에 7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그 중 34.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죽음교육에 대해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t-test, ANOVA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7. 성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항 목	남		여		t 값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7.95	2.56	8.09	2.75	0.35
죽음에 대한 불안도	8.94	1.72	8.87	2.00	0.17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8.99	2.63	9.54	2.50	5.64*
시신처리태도	2.07	1.06	2.42	1.18	11.35*
안락사	2.96	1.01	3.00	1.03	0.67
죽음교육의 필요성	2.86	0.94	3.18	0.82	16.33*

* P<.01

표 8. 학교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항 목	인 문		실 업		t 값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7.97	2.77	8.10	2.57	0.26
죽음에 대한 불안도	8.84	1.95	8.96	1.83	0.51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9.53	2.57	9.10	2.55	3.55*
시신처리태도	2.51	1.17	2.04	1.06	22.13**
안락사	3.15	0.97	2.80	1.05	14.95**
죽음교육의 필요성	3.15	2.95	0.85	0.90	6.58**

* P<.05 ** P<.01

1) 성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시신처리,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와 죽음교육(Death Education)에 있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같이 느끼고 있으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더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Back(1971), Keith(1979), 서혜경(1988)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표 7 참조).

2) 학교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인문고 학생들이 실업고 학생들 보다 과학실험이나 장기이식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P<0.01),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에서도 인문고 학생들 보다 실업고 학생들이 죽음을 삶의 패배로 좌절로 보며, 죽음을 생각하며 살기 보다는 그저 열심히 살면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P<0.05). 또한 안락사와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인문고가 모두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죽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8 참조).

3) 학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자신의 시신이 과학실험이나 장기이식등에 쓰여도 무방하다는 것에 1, 2학년의 경우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3학년은 부정적 태도를 보여 학년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또한 안락사에 관한 생각에 있어서는 1학년과 3학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P<0.05), 1학년이 안락사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로 보아 대체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과학적인 새로운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9 참조).

4) 학교성적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학교성적이 중상인 경우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회피하고 싶어하는데, 성적이 중, 하에 속하는 경우는 죽음을 두렵게 느끼지 않으며,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이는 성적이 나쁜 학생에 대한 가정, 학교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장기이식등의 사후 시신처리 문제에서도 성적이 중상에 속하는 학생들인 경우는 사후 장기 이식이나 실험용으로 자신의 시신이 쓰이는데 반대하고 있으나, 중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표 9. 학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항 목	구 분		1		2		3		F 값
	M	SD	M	SD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8.18	2.84	7.86	2.59	5.78	2.18	1.12		
죽음에 대한 불안도	9.19	1.68	7.75	2.07	9.19	1.89	25.45**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9.44	2.56	9.10	2.57	9.18	2.60	0.83		
시신처리태도	2.63	1.15	2.34	1.19	1.97	1.04	4.77**		
안 락 사	3.03	1.01	3.07	0.96	2.74	1.08	3.56*		
죽음교육의 필요성	3.06	0.87	3.03	0.98	3.01	0.80	0.13		

*P<.05 **P<.01

표 10. 학교성적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항 목	구 분		상		중 상		중		하		F 값
	M	SD	M	SD	M	SD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7.95	2.59	7.76	2.63	8.12	2.53	8.32	3.19	0.87		
죽음에 대한 불안도	9.41	2.81	8.80	2.71	9.82	2.56	9.87	2.75	4.83*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9.40	2.65	9.10	2.64	9.29	2.54	9.73	2.32	0.95		
시신처리태도	2.34	1.12	2.09	1.10	2.45	1.17	2.12	1.14	3.33*		
안 락 사	3.02	0.97	3.01	1.01	2.98	1.05	2.84	1.07	0.47		
죽음교육의 필요성	2.93	0.99	3.08	0.78	3.04	0.89	3.06	1.00	0.49		

*P<.01

표 11. 성격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항 목	구 분		내 성 적		중 간		외 향 적		F 값
	M	SD	M	SD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8.40	2.88	7.78	2.45	8.11	2.76	2.43*		
죽음에 대한 불안도	9.01	1.84	8.93	1.86	8.70	2.03	0.86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9.20	2.48	9.34	2.50	9.36	2.80	0.16		
시신처리태도	2.17	1.11	2.27	1.17	2.42	1.13	1.55		
안 락 사	2.89	1.11	2.99	0.98	3.05	1.01	0.74		
죽음교육의 필요성	2.92	0.99	3.10	0.85	3.08	0.82	1.87		

*P<.1

보이고 있다(표 10 참조).

5) 성격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P<0.1), 성격이 외향적 특히 중간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자살을 부정하고 있는데 비해, 내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자살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

러한 학생에 대한 지도에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표 11 참조).

6) 죽음을 본 경험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불안도와 시신처리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죽음에 대한 불안도는 타인의 죽음을 경험한 학생이 오히려 덜불안해 하고 있는데(P<0.01), 이는 죽음을 본 경험의 유무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이식등의 시신처리 태도에서도 타인의 죽

표 12. 죽음을 본 경험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항 목	구 분		있 다		없 다		T 값
	M	SD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8.13	2.65	7.92	2.69	0.80		
죽음에 대한 불안도	9.09	1.83	8.68	1.59	5.79**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9.37	2.66	9.27	2.47	0.17		
시신처리태도	2.38	1.17	2.16	1.10	5.03*		
안 락 사	3.04	1.01	2.91	1.04	1.75		
죽음교육의 필요성	3.10	0.90	2.99	0.86	1.90		

* P<.05 ** P<.01

표 13. 죽음 생각 유무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항 목	구 분		자주있다		1~2번		없 다		F 값
	M	SD	M	SD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8.48	2.88	7.72	2.40	6.92	2.62	7.27***		
죽음에 대한 불안도	9.26	1.95	8.53	1.76	9.00	1.69	9.21***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9.58	2.79	9.08	2.33	9.38	2.60	2.25*		
시신처리태도	2.41	1.16	2.17	1.12	2.03	1.07	3.34**		
안 락 사	3.00	1.08	2.98	0.96	2.86	1.09	0.40		
죽음교육의 필요성	3.25	0.86	2.90	0.86	2.69	0.92	12.03***		

* P<.1 ** P<.05 ***P<.01

음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표 12 참조).

7) 죽음 생각 유무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을 생각해 본 경험 유무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는 안락사만을 제외하고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자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죽음을 자주 생각한 학생들이 1~2번 혹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에 비해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P<0.01), 이는 청소년 정서 지도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에서 죽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나 1~2번 생각해 본 사람보다는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본 사람인 경우에서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죽음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 죽음을 지켜 본 경험 유무에 따른 죽음 불안도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 유무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P<0.01). 이것은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에서도 같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여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본 사람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후 자신의 시신을 장기이식이나 과학실험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입장에서도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P<0.05),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P<0.01).

많은 학생들이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러한 결과로 볼때 죽음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표 13 참조).

8) 죽음 생각 이유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자살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와 죽음교육의 필요성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살에 대한 태도에서는 특히 타인의 죽음을 본 사람이나 가정문제로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보다는 성적 문제로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성적을 포함한 학업문제가 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큰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이는 이길홍등(1991)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정서적 문제와 학업문제로 인해 자살을 가장 많이 한다는 보고를

표 14. 죽음 생각 이유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항 목	구 분		타인의 죽음		진로(진학)		성 적		친구(이성)	
	M	SD	M	SD	M	SD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7.47	2.31	8.11	2.57	8.83	2.77	9.10	3.41	9.10	3.41
죽음에 대한 불안도	8.98	1.92	9.22	1.82	8.91	2.10	9.25	1.91	9.25	1.91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8.71	2.70	8.88	2.66	9.65	2.37	10.00	3.45	10.00	3.45
시신처리태도	2.26	1.23	2.27	1.21	2.32	1.20	2.35	1.16	2.35	1.16
안 락 사	2.98	1.06	2.84	0.92	3.17	0.92	2.67	1.38	2.67	1.38
죽음교육의 필요성	3.05	0.93	3.33	0.63	3.09	0.83	3.14	0.93	3.14	0.93

(계 속)

항 목	구 분		가 정		의 모(건강)		사 회		F 값
	M	SD	M	SD	M	SD	M	SD	
자살에 대한 태도	7.15	2.56	9.80	2.93	7.42	2.83	3.02**		
죽음에 대한 불안도	8.73	1.86	8.83	1.40	8.23	1.60	0.92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9.66	2.28	9.08	2.90	8.47	2.52	2.11*		
시신처리태도	2.41	1.06	2.66	1.23	2.47	1.16	0.33		
안 락 사	3.07	0.97	3.50	0.79	3.00	0.94	1.69		
죽음교육의 필요성	3.10	0.89	2.33	0.98	3.04	0.80	2.44		

* P<.05 ** P<.01

뒷받침하는 것이다.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진학(진로)문제로 죽음을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 가정, 성적문제로 청소년 시기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성적이었다(P<0.01).

이상의 결과에서 진로와 성적으로 인해 죽음을 생각해 본 청소년이 많으며, 그와 함께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앞으로 청소년의 고민과 죽음에 대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서구에서 처럼 학교 교과과정에 죽음교육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14 참조).

3. 생활 만족도, 가치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친구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이 47.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수가 만족감을 표시하여 자기자신이나 학교생활에서의 불만등을 친구관계를 통해 해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기의 교우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인생에 있어 뚜렷한 목표가 있고(36.9%)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38.9)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책임이라고(39.7%)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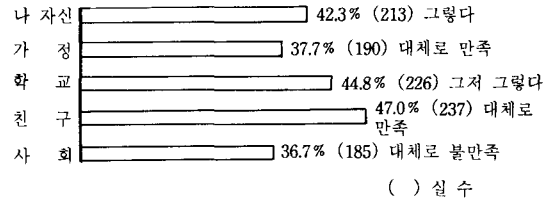


그림 1. 생활 만족도

답했고,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항목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40.1%) 자신감을 보여, 대체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아(37.9%) 현실에서 억압을 느끼고 있음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49.8%)이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그림 2 참조).

생활 만족도와 가치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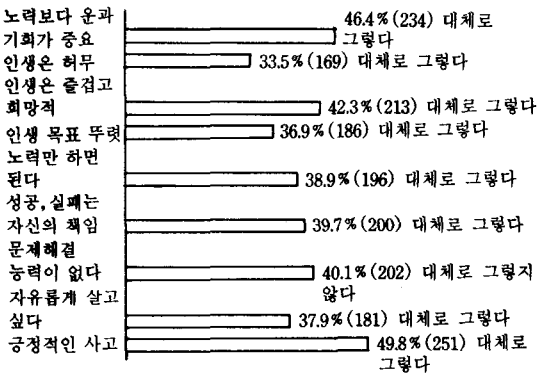
먼저 생활 만족도와 가치관과의 상관정도를 보면, 생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자기 자신의 능력과 삶에 가치를 보여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4293, P<0.01).

생활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모두 유의한

표 15. 생활만족도, 가치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변수간의 상관관계	생활만족도	가치관	자살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불안도
가치관	.4293*			
자살에 대한 태도	-.2939*	-.2976*		
죽음에 대한 불안도	-.1725*	-.0523	.1186*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1799*	-.1754*	.3304*	.1357*

* P<.01



() 실 수

그림 2. 가치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해 부정적이며($r = -.2939, P < 0.01$),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높으며($r = -.1725, P < 0.01$), 죽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역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 = -.1799, P < 0.01$).

이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높고 부정적이라는 Kalish(1963), 서해경(1988)의 연구를 뒷받침 하면서 생활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선행 연구에서 Nelson(1974), Bell(1979) 등이 인생 만족도가 높으면 죽음불안도가 높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를 Trent등(1981)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가치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죽음 불안도는 통계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치관과 자살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가치관이 긍정적인 사람이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나타내고 있고($r = -.2976, P < 0.01$),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도 죽음을 부정하는 역 상관 관계를 보인다($r = -.1745, P < 0.01$).

이것은 자신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죽음을 인지하고 정당화하며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 한 Marshall(1975)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 내에서의 항목간 상관관계를 보면, 자살에 대한 태도와 죽음에 대한 불안도와의 상관관계는 자살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 죽음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고($r = .1357, P < 0.01$), 특히 죽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3304, P < 0.01$). 죽음에 대한 불안도와 수용태도와의 관계 역시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낮을수록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r = .1357,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하고 적극적인 생활 자세를 갖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 그들의 평소 죽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만족도와 가치관의 관계를 파악하므로써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남자보다 여자가($P < 0.01$), 실업고보다 인문고가($P < 0.05$)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학년이 낮아질수록($P < 0.01$) 불안도가 낮았다. 장기이식, 안락사 그리고 죽음교육에는 여자가($P < 0.01$), 인문계가($P < 0.01$), 학년이 낮을수록($P < 0.05$) 긍정하는 과학적 사고를 보였다.

2. 학교성적이 중상이상인 경우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낮으며, 장기이식등에 긍정적 이었다($P < 0.01$).

3. 성격이 내성적이 사람이 자살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P < 0.01$)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타인의 죽음을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죽음 불안도가 낮고($P<0.01$), 시신이나 과학실험이나 장기이식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P<0.05$).

5. 죽음을 생각해 본 경험 유무에 따라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에 대해 긍정적이고 죽음 불안도가 낮으며($P<0.01$), 죽음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P<0.1$), 장기이식에 찬성하며($P<0.05$), 죽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P<0.01$).

6. 죽음을 생각해 본 이유에 따라서 자살과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 죽음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적문제로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인 경우에서 자살에 대해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P<0.01$), 친구(이성)문제로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이 죽음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나타냈다($P<0.05$). 죽음을 생각해 본 경우 죽음교육에 대해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진학(진로)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P<0.01$).

7. 청소년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면, 친구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만족해 하고 있다(47.0%).

8.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인생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가치를 보면, 인생에 대해 희망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42.3%), 무엇이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38.9%),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으나(49.8%), 현재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7.9%).

9.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자신의 능력과 삶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r=.4293, P<0.01$)

10. 생활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해 부정적($r=-.2939, P<0.01$)이며,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높으며($r=-.1725, P<0.01$),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역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r=-.1799, P<0.01$).

11. 가치관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죽음 불안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보이지 않으나, 가치관과 자살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가치관이 긍정적인 사람이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r=-.2976, P<0.01$), 죽음에 대한 수용태도도 죽음을 부정하는 역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r=-.1745, P<0.01$).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제도의 개편으로 이들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정규 교과 과정 혹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죽음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셋째, 죽음에 대한 태도는 한 두가지 변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변수들의 직, 간접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이에 대한 연구,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참 고 문 헌

1. 김광일, 이효경(1985),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신경정신의학 제24권, 제3호.
2. 김경미(1984),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경남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3. 김귀분(1977),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 6~9.
4. 김덕자(1975), “여고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5. 김인자(1984),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6. 김인희, 정순복(1974), 『한국문화와 교육 : 한국인의 사망관과 교육관』, 이대 출판부.
7. 김재인(1986), “고등학교 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서울특별시 인문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8. 김태현, 손양숙(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 노년학회지 제3권, 제19호.
9. 김혜련(1991), “노인이 지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도-유료 및 무료시설과 재가 노인의 비교”, 이화

-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0. 권성자(1983),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 1~11.
 11. 박화조(1983). “고교생의 삶의 태도에 관한 일연구-Logotherapy의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2. 서혜경(1987), “한국과 미국 노인들의 정신 및 심리적 건강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연구”, Ohio State Univ. Doctoral Dissertation.
 13. 안황란(1988), “인격발달 단계별 죽음개념에 대한 한국과 서양문화권의 비교”, 경상대 논문집, 제27권 제1호.
 14. 유계주(1974),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대한간호, 제13권 제2호.
 15. 윤우상, 이영식, 이길홍(1991), “소아 청소년 자살기사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인 연구”, 제34차 추계 신경정신의학회, 미간행.
 16. 이광자(1982). 『위기조정』, 신광출판사. pp. 125-145.
 17. 이길홍(1980), “죽음에 관한 종합적 고찰”, 한국 의과학, 제12권 제2호.
 18. 이은주, 김철규(1980), “한국인의 자살에 관한 태도-의과대학생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제20권.
 19. 이정숙(1980), “죽음과 임종에 관한 개념적 이해와 그에 따르는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고찰”. 이대 한국문화원 『논총』 제37권.
 20. 장미란(1981),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1. 정범모(1985), “가치관과 교육” 서울 : 배영사, pp. 20~30.
 22. Borkenau. F. (1965), 『The Concept of death』, New York : Wiley Press.
 23. Cambell. M. (1975), “on dy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p. 796.
 24. Cant. G. (1973). “Deciding When Death is Better Than Life”, Time, July 26, pp. 36~37.
 25. Collett, L. J.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72, pp. 179~181.
 26. Dickstein, L. S (1977), “Death Concern : Measurement and Correlate” Psychological Reports 30, pp. 563~571.
 27. Eissler. K. R. (1955). 『The Psychiatrist and Dying Patients』,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28. Feifel, Herman (1970), “Function of Attitudes toward Death”, Death and Dying : Attitudes of Patient and Doctor, Group for Advancement of Psychiatry.
 29. Glenn M. Vernon (1970), 『The Sociology of Death』, New York : The Ronald Press. pp. 33-89.
 30. Gordon. D (1973). 『Overcoming the Fear of Death』, Baltimore.
 31. Keith, Pat M. (1979), “Life change and perceptions of life and death among older men and women”, J.O.G. Vol 34 No 6. pp. 870~878.
 32. Klunckhohn C. and Others (1951), “Valuer and Value-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ed. In T. Parsons and E. A. Shil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p. 395.
 33. Meyer, J. E. (1973), 『Death and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34. Pattision, E. M. (1974), “Help in the dying process”, In American Journal Psychiatry, Arieti, S. (Ed), Vol. 1.
 35. Ray (1974), “Death anxiety and death acceptance : A preliminary approach” Omega, Vol 5, No 4, pp. 311~315.
 36. Robert Kastenbaum & R Aisenberg(1972), “The psychology of death”,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Inc. pp. 2~10.
 37. Templer, D. I. (1971). “Death Anxiety as related to Depression and Health of Retired person”, J. O. G. Vol. 26. pp. 521~525.
 38. Volnson, W. M. (1961), “Attitudes Toward Death in an Aged population”, J. O. G. Vol. 16.
 39. Weisman Avery (1972), 『On Dying and Denying』,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

〈Abstract〉

A Relational Study on Attitudes Toward Death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alues of Juveniles

Sook-Kyung Chung, Cho-Kang Kim

(Dept. of Healt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waken the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and provide basic materials for healthy attitudes toward death and life.

For this purpose, it observed the attitudes toward death by Juveniles and recognized life satisfaction & values related to it.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as based 504 students of high school in Seoul.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methods of frequency, percentage, reliability,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as the higher value on self one's ability and life.
2.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that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is the higher lever death anxiety, negative to suicide and death.
3. There was no differences between values and death anxiety. However,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that the higher values was negative to suicide and reject death.
4.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background and attitudes toward death, there seem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 woman, general high school, the lower grade, the higher the lever of socioeconomic statues were the lower anxiety, positive to death and awaken the necessity of death education.